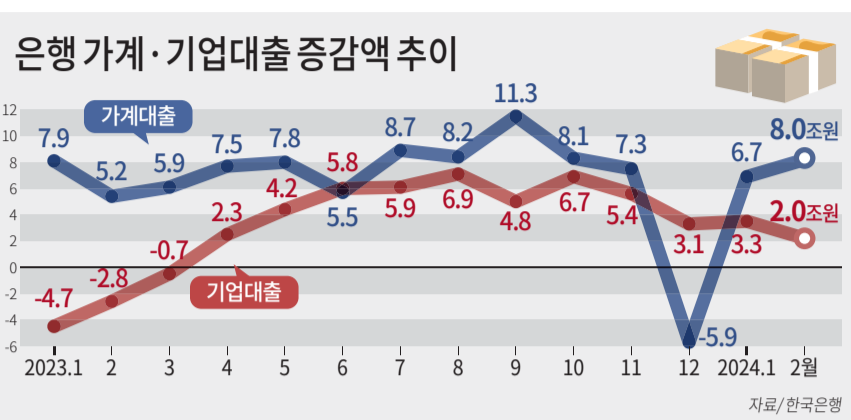


가계빚 2조 늘어 10개월째 증가세 명절자금 수요에 기업대출 8조 ↑

한은, 2월중 금융시장 동향
은행 가계대출 잔액 1100.3조
주담대 4.7조 늘어 860조 기록
은행 기업대출 잔액 1262.4조
대기업, 3.3조 증가한 256.2조



◆ 2금융권 가계대출 3.8조원 ↓

지난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3조8000억원 감소해 전달(-2조5000억원)보다 감소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 2월 가계대출은 3조원 감소했다.

보험사 가계대출도 전달 대비 6000억원 감소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가계대출은 1월 증가했다가 2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1월 각각 1000억원, 4000억원 늘었지만 2월 들어 1000억원 줄었다.

원 차장은 "제2금융권의 경우 지방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는데,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며 자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제2금융권의 경우 취약계층의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본연의 목적이 있는만큼 가계대출 축소가 위해가 되는 정도가 아닌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은행 기업대출, 8조원 ↑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262조4000억원으로 전달보다 8조원 증가했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3조3000억원 증가한 25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폭은 전달(5조2000억원)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회사채에 기관투자들이 양호하게 투자하고, 금리하락이 이뤄지면서 일부 대기업은 회사채를 이용했다. 회사채 순발행 금액은 2월 3조6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06조2000억원으로 한달새 4조7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대출잔액에 포함된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1월 -7000억원에서 2월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원 차장은 "은행들이 기업대출 영업을 확대하면서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중소기업대출은 기업의 시설자금과 명절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정치권, 코인러 겨냥 공약에 '관심집중'

비트코인 하나 가격이 1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코인러(가상자산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뜨거운 감자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이 공약으로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총선 공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

13일 국내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억160만원에 거래되면서 종전 기록한 1억원 기록을 경신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8300만원 선을 넘어서면서 지난 2021년 11월 9일(8270만원)의 전고점을 돌파 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민주당 '현물 ETF' 거래 허용 추진
매매수익 공제 한도 5000만원으로
국민의힘, 과세 2년 추가유예 검토

투자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총선으로 쏠리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코인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투자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 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 역

시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비트코인 ETF 발행, 가상자산 제도화 등 야당과 같은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월10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상장과 거래를 승인하자 당일 금융위원회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한 거부를 나타냈다.

또한 금융위는 "정부가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내놓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와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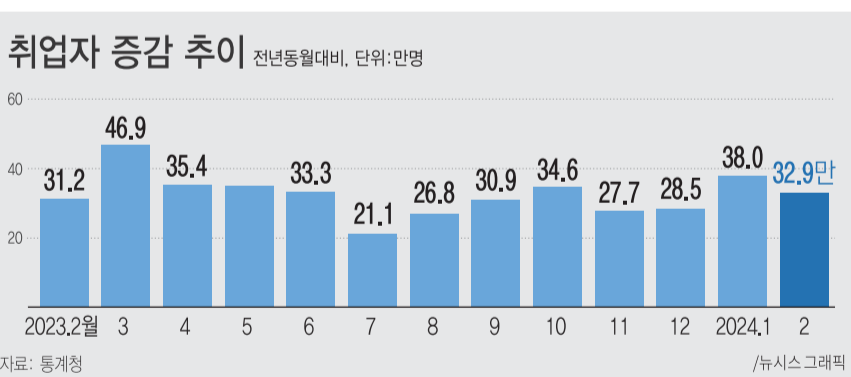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부분은 비트코인에 대한 기초자산 인정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4조 10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취업자수 늘었지만... 20·40대는 또 줄어

통계청, 2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 2804.3만명, 32.9만명 ↑
연령별로 60세 이상 29.7만명 늘고
40대 6.2만명, 20대 2.9만명 줄어



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청년층인 15~29세 나이대 취업자도 1년 전보다 6만1000명 줄어들며 16개월째 뒷걸음쳤다. 단, 고용률은 46.0%로 전년동월대비 0.5%포인트(p) 올랐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8000명·8.5%), 정보통신업(8만명·7.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8000명·5.9%) 등에서 증가했다. 건설업도 3만6000명 늘며 6개월 연속 취업자 수 오름세를 이어갔다. 평년대비 기온이 상승해 건설과 현장 안전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취업자도 3만8000명 늘며 2022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은 세부산업군, 업종별 차이가 있다"며 "전자·전기 쪽

은 취업자 감소가 축소됐고, 식료품이나 자동차·기타기기 등 수출하고 있는 분야는 증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7만2000명 늘었는데 증가폭은 2021년 1월(-7만4000명) 이후 가장 크게 둔화했다. 37개월간 관련 분야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과 함께 코로나19 때 많이 충원된 보건 부문 취업자가 빠져나간 것이다.

농림어업(-3만3000명)과 교육서비스업(-2만2000명), 부동산업(-2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00명 감소하며 전월(-8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쪼그라들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늘어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전남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면제 속도

>> 1면 '尹, 우주개발 예산'서 계속

이어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우주개발에 나서려는 이유"라며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인 우주를 향해 우리 대한민국의도 더욱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우주항공청의 설립, 취임 후 제시한 우주경제 로드맵을 언급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가 드디어 출범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며 꿈을 이뤘는 우주 항해의 베이스캠프"라며 "저와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민간 로켓 발사장, 우주환경 시험시설처럼 민간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타 면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올해 말까지 경남 국가항공 우주산업단지 조성 완료, 대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는 2028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에 조성한 정부 민간 매칭 우주펀드를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해 클러스터에 입주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해 이 중 10개는 월드클래스 우주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또,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리고 25만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과감한 지원과 효율적 투자로 우주시대를 향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30여년의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가진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했다"며 "여러분의 꿈과 헌신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더 먼 우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이 이어 대한민국의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며 "저는 그 꿈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우주를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